

광양매화축제, 데이터로 개화 맞추고 콘텐츠로 체류시간 늘렸다

광양시, 유료화 이후 하루 13만 명 최대 인파... 지역 상생·지속가능 구조 완성

광양시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축제 기간 71만 명이 찾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2024년 유료화 이후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았으며, 주말에는 하루 13만 명이 몰려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

개화 절정과 맞물린 축제는 문화·예술·먹거리·체험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운영이 어우러지며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광양시는 기상청 기온 자료와 농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화 만개에 필요한 적산 온도를 산출해 축제 개최 시기를 조정했다. 기후변화로 개화 시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실제 만개 시점과 축제 일정이 맞물리며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축제 콘텐츠도 한층 다양해졌다. 축제장은 문화·체험·미식·관광이 결합된 복합 플랫폼으로 확장됐다. '입재권 화백'의 민화 특별전과 미디어아트전은 매화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였고, 문화축제로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야외 매화 독서 프로그램 '비밀의 정원'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광양매화문화관 일대에서는 주무대를 중심으로 광양시립예술단 공연과 버스킹, 12개 읍면동이 참여한 '우리동네 콘서트' 공연이 열렸고, '봄날 러브레터', '인생네컷', '보이는 스튜디오' 등 참여형 콘텐츠도 함께 운영됐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이 일대가 축제 중심 공간으로 확대됐다.

먹거리 분야에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가 호응을 얻었다. '김국 한 상', '광양 불고기김밥', '광양매실한우버거', '매실담아도시락', '광양토종닭꼬치', '섬진강 매화마실 카페존' 등 축제 한정 K-푸드가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직거래장터와 향토 음식점, 지역 카페 참여도 확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에 도움이 됐다.

관광 연계 프로그램은 체류형 관광 전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국관광 100선 탐방이벤트', '광양매화 스텝투 투어', '매화꽃할터, 매화사공', '섬진강 뱃길 체험', 'Fun



Run(매화길 가벼운 걸음)' 등 참여형 콘텐츠가 운영돼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체험의 기회를 넓혔다. '매화랑 2박 3일' 프로그램도 숙박과 관광을 연계하며 체류형 관광 기반을 넓혔다.

입장료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고 관광지 연계 무료입장을 도입한 점도 축제와 지역 관광을 잇는 데 역할을 했다. 특히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공식 축제장과 다담 소재 상점,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중마시장 일부 점포로 제한해 지역 상권 소

비로 이어지도록 했다.

방문객 편의와 안전,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힘썼다. 광양시는 차 없는 축제장 운영과 주차장 및 무료 셔틀 확대, 도심권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불법 노점과 바가지요금에 대한 상시 점검과 단속으로 축제 질서 유지에 나섰다. 또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 운영에도 힘을 기울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곡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상생협력의 첫걸음

곡성군-지역농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활동 업무협약

전남 곡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곡성농협, 석곡농협, 옥과농협, 입면농협, 곡성축협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에 따라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에서도 하나로마트 이용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이에 따른 농협의 지역 상생활동과 사회환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사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농협별로 반찬 나눔, 이동마트 운영,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역 상생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장터 운영을 통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곡성군이 추진 중인 희망복지기동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해 마을 활력 증

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장터 매출 일부를 군과 농협이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곡성의 미래를 여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과 농협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 초기인 만큼 어려움도 있지만, 단계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통해 상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군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앞으로 협약에 따라 농협과 환원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보성군은 지난 20일 보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육·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보성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 법적 의무교육 체계적 운영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실제 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은 앞으로도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

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돌발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종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은기 기자

담양군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이 직접 수련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신규 위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위원들은 수련원 운영과 프로그램 점검을 비롯해 정책 제안, 프로그램 기획, 지역 청소년 활동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청소년 활동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선발된 위원

담양군청소년수련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

청소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미래 리더로 성장하는 기회

들은 1년간 활동한다. 수련원 관계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단순한 이용자를 넘어 수련시설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이메일)

이나 쿼알(QR) 코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소년수련원에 전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이근우)이 위탁 운영하는 담양군청소년수련원은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 확대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참여기구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2026년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영암군은 지역 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이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주자 모집을 온라인(정부 24)과 방문(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신청으로 함께 진행한다.

본 지원사업은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도에 기관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총 200호의 공공주택을 영암형 공공주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일정금액의 예치금을 받고 2년간 거주(2년 연장 가능),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 30호, 2025년에는 62호, 총 92호가 입주완료 하였고 올해 추가 공급할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은 삼호읍 용암LH 1단지 2호, 용암LH2단지 10호, 학산LH1단지 14호, 총 26호가 공급되며,

신청 후 주거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입주자 현황을 보면 총 98명으로 관외에서 41명이 유입되었고, 57명의 관내 청년도 인근도시로 유출되지 않아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내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정책에 기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을 도시디자인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많은 분들이 영암형 공공주택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성군이 최근 보건소 교육실에서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금연지도원은 지역 내 금연구역 관리, 현장 점검,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개 조로 편성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공원 등 흡연 단속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장성군, 금연지도원 위촉... 담배 없는 환경 조성

금연구역 점검, 흡연 행위 감시·계도 등 활동

'장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위촉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교육에선 △관계 법령 소개 △현장 대응 요령 숙지 △지도·계도 절

차 안내 등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숙지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새로 위촉된 금연지도원 여러분이 금연 문화 확산에 큰 힘

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금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장성군은 '금연 클리닉', '원스톱 금연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금연 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금연 메신저'로 양성해 금연 홍보를 맡길 방침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